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9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 역사와 문학의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29강의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곳에서 실제로 그 책에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구약에 뿌리를 둔 주제를 다루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다음 책인 James로 넘어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버지, 오늘과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학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지점까지 도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계시에 대해 명확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중 한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이 첫 번째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전달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격차를 메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은. 새 언약, 저는 지난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언약의 주제는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아담 및 하와와의 관계는 그분이 그들과 세우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구약성서, 즉 구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시지만 죄로 인해 좌절되면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일련의 언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결정하는 새 언약 관계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는 구약의 여러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 중 하나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에 실제로 인용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제 주 안에서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나 다른 예언서, 심지어 언약이나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본문에서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가 거하실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회복할 새 언약 관계의 확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중 하나인 에스겔 37장은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수립을 분명히 암시하고 예상하며 언약 관계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36장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실 날을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를 열방 중에서 취하며 열방 중에서 모아 고국으로 인도하여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한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고 너희 모든 우상에게서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더러움 등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의 새 언약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이전 언약 관계와 비교할 때 새 언약에 있어서 그렇게 새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재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개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매개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죄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도 그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러움과 우상 숭배에서 용서하시는 말씀, 즉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한 바로 그 일, 애초에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가게 한 바로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처리하실 것입니다.

옛 언약 관계가 죄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제정하심으로써 행하실 궁극적인 최종 정결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능력, 곧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하거나 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첫 번째 언약과는 반대로 그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읽는 새 언약의 수립과 관련된 새로운 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신약성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모든 축복이나 유익은 새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전에 말했듯이 신약 저자들이 성령을 언급하고 성령에 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언약의 일부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읽는 언어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심지어 생각조차 할 때, 우리는 영으로 충만함이나 영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바울은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영으로 인침을 받거나. 그 모든 것은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 오늘날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는 것은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우리가 구원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의 축복을 언급하기 위해 신약에서 사용하거나 발견하는 모든 언어는 모두 새 언약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외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칭의, 속량, 영을 받음,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신약성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관해 이야기할 때 모든 유익은 모두 새 언약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시작과 성취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약에서 본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구조에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를 침략하고 그의 통치가 역사 속으로 침입하여 악의 권세를 물리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인정되고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왕국을 시작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왕국은 아직 충만하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완전한 힘을 가지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사단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왕국이 아직 미래의 일인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여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새로운 창조물은 이미 존재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새 언약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장차 온전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측면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새롭고 즉각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이 새 언약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죄를 온전히 처리하고 죄를 온전히 용서하는 언약입니다.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교한 환상의 일부인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3절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말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1장과 3절에서는 언약의 언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인 에스겔 37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저자는 “내가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이 요한의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직은 종말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어 그 완전한 절정과 성취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구원의 다른 대부분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참여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들은 최종 성취와 궁극적인 새 창조의 최종 나타남에 앞서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함께하시더라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최종 구속에 대한 계약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모든 축복이 연결된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최종 성취에 대한 기대에 대한 계약금일 뿐입니다. 좋아요, 하나, 둘,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설명을 하자면, 비록 당신의 노트에는 없지만, 적어도 신약에 관해서는 당신이 많은 날짜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저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약 40~50년, 어쩌면 60년 정도에 발생합니다. 적어도 책의 저술이나 사건에서는 말이죠.

물론 사건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날짜를 배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세기만 추측했다면 거의 모든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날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기 70년이나 서기 70년, 즉 서기 70년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 날짜를 언급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서기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기억하십시오. 기원전 63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이 매우 짧은 독립 기간을 누린 후 다시 한번 외국의 영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를 다시 정복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마침내 정점에 이르렀고, 서기 70년이나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멸망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들어가서 그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 날짜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는 종종 히브리서에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처와 희생과 대제사장직에 관심이 있지만 성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책임니다.

대신 저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헤매는 과정에서 동행했던 성막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히브리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동안이나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즉, 서기 70년 성전 파괴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신약성경 문서는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나 그 직후에 글을 쓰는 사람은 확실히 사건을 언급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특정 문서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건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날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것을 알아야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서기 70년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히브리서에서 성전을 언급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성막을 언급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광야 세대를 그의 주요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날짜인 서기 70년 또는 서기 70년과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날짜입니다.

괜찮은. 자, 초대 교회의 우편물 중 또 다른 부분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임스의 모습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오, 흥미롭네요. 나는 전에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합니다.

우선, 우리는 야고보서의 가치를 깨닫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익숙해지지만, 야고보서를 주제로 한 설교나 일련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왜 그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그 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그 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다루는 방식의 분수령 중 하나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다루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관련하여 마틴 루터를 살펴볼 때, 루터는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가르침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칭의는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이 거의 상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고보를 보고 실제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것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 흥미 롭군요.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루터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 야고보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서에 대한 강조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루터가 야고보에게 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읽었을 때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행할 뿐 아니라 행함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실제로 야고보서가 신약성경에 속하는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칭의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James와 Paul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의미에서 루터의 유산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에 대해 듣는다면 일반적으로 야고보가 시련 속에서의 인내와 인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1장에 국한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좋게 들리는 성경적 주제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듣다.

하지만 제임스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은 다른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나중에 믿음의 기도가 누군가를 낮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면 낮게 될 것입니다. 또는 James는 말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 말은, 우리는 그런 진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야고보가 우리의 표를 얻었을지라도 아마도 그것이 신약성서에 있어야 할 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바울 서신의 더 안전한 곳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종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측정하는 필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마틴 루터의 유산에 비추어 살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이 나타나는 순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큰 부분인 사도행전 이후라는 사실입니다., 또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서, 우리가 접하는 가장 많은 문서는 Paul의 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신이 바울 안에 흠뻑 빠져들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야고보나 다른 책들을 읽기 위해 신약성서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 설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배웠습니다. 바울, 우리가 깨닫든 모르든, 바울의 서신은 우리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기나 렌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전체를 포함하는 4세기 초, 5세기 신약 사본 중 일부에는 실제로 야고보가 바울의 서신보다 먼저 나오는 것도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신약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를 읽은 후에 바울의 서신을 읽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닌 것인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 너무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야고보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거나 재빨리 우리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도록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편지 자체와 편지가 왜 중요한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저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가 적어도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적어도 세 명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명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세 번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도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사도행전 12장과 15장, 그리고 아마도 사도행전의 한두 군데에서 그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 책의 독자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두는 것을 지지해 왔으며 압도적으로 찬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이자 형제였으며,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간주되고 신약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논증이나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 책의 첫 구절에 언급된 저자인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였으며 1세기에 야고보의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읽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서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로 여기서 당신은 왜 야고보가 히브리서와 함께 일반 서신의 하나로 서신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역시 꽤 넓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는 전형적인 1세기의 편지처럼 시작하지만, 이어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독자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핵심은 열두 지파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두 지파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언급을 좀 더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신약이 구약에서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 책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씨로 분류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육적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언어를 택했고 이제는 그것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산된 열두 지파에 대한 언급이 은유적으로 교회,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선택은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거나 퍼져 나가거나 제거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제적, 물리적, 문자적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제거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산되어 있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지리적, 특정 지리적 영역에 걸쳐 고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James는 일반적으로 이 그룹에 대해 언급할 편지를 보냅니다.

내 생각에 이 그룹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제임스 전체에서 빈곤과 부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제임스가 많은 독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지주들에 의해 이용당할 정도로 빈곤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국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분리되어 인종적으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소유주와 부유한 지주들의 손에 종종 학대를 당하고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주인. 그리고 당신은 많은 참고 문헌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언급은 칭의에 관해 야고보가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다시 가려집니다. 바울이 당신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빈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장 끝에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2장에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논하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기 전에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옷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 하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제임스는 마치 그의 독자 중 적어도 일부가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해 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부와 빈곤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독자 중 일부는 극심한 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분산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1세기의 편지 외에

야고보서가 어떤 편지인지 물었을 때, 그것은 마치 편지처럼 시작하고 끝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이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처럼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에게.

누군가 제안했듯이 야고보는 분산된 편지로 알려진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작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의 한 지도자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관리 또는 지도자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읽을 수 있는 권위 있는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그 패턴을 따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야고보는 분산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권위 있는 지도자였으며 지금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히고 지금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1절에 확실히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유로 야고보를 분산된 편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가 현재 예루살렘 외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분리되는 어려움, 종교의 중심, 하나님의 거처와 그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축복의 중심에서 분리되는 어려움. 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공식적인 편지 형식인지 아니면 독자들이 동일시하고 존재한다고 이해했을 편지 형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임스는 1세기 편지를 쓰는 꽤 전형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야고보가 그의 편지 전체에서 여러 곳에서 실제로 구약성서와 유대 속담 문학 또는 잠언에서 발견되는 지혜 문학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일부 구절이나 야고보서의 특정 진술은 잠언적인 유형의 품질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제임스를 진주 다발이 엮은 끈으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에서 발견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비록 잠언의 일부를 알고 있지만 저자가 이렇게 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잠언을 읽어보면 그가 다른 주제로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임스가 한 지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점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제기한 많은 주제가 잠언과 기타 지혜 유형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의 말에 대한 지시, 말을 조심하라, 분노에 대한 지시, 가난과 부에 대한 그의 지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잠언이나 유대인의 지혜와 같은 책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상당히 일반적인 견해는 야고보서가 구약의 지혜나 유대교의 지혜 문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유사점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야고보는 가르침과 일부 주제 및 표현 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유형 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야고보서의 목적은 무엇이며 야고보는 왜 글을 쓰는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현명하게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야고보는 고국, 즉 예루살렘에서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설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들이 신앙을 현명하게 실천하고 지혜로운 개념을 도입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세상에. 이제 Jame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James의 계획, James가 어떻게 구조화 또는 배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여러분에게 정교한 개요나 어떤 것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주제나 아이디어를 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또는 인내라는 주제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난과 관대함이다. 그래서 제임스는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관대함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와 말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잠언과 같은 책에는 모든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말이요. 흥미롭게도 제임스는 첫 번째 장, 즉 처음 8, 9, 10절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모두 소개하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주제는 1장에서 소개되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James는 책 전반에 걸쳐 두세 번 더 이러한 내용을 선택하고 길게 확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장을 듣고 노트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시, 시련과 가난과 관용 가운데서의 시험과 인내, 가난과 부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소개 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와 흠어진 열두 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시험을 당하든지 오직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시련 가운데서 시험하고 인내한다는 주제가 보입니까?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므로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말, 특히 기도에 관한 말의 주제를 포착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면 신자 곧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부자는 낮아지는 것을 자랑할지니 부자는 들판의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가 돌아 뜨거운 열기로 밭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라.

마찬가지로 부자도 바쁜 생활 속에서 시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인내, 그리고 지혜와 말, 가난과 부, 또는 가난과 부와 관대함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모두 주목하십시오.

이 세 가지 주제는 모두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 두세 번 더 재검토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확히 어떤 구절과 장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야고보서가 확장하고 사용하는 동안 책의 나머지 부분을 순환할 것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독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룬다. 예,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더 큰 덩어리로 발생합니다.

이제 그는 예를 들어 시험과 인내라는 주제를 취하여 그것을 상당히 긴 부분에서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와 가난, 또는 그와 유사한 것, 지혜와 언어로 넘어갈 것입니다. 3장과 4장에는 지혜와 말에 관한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10절로 끝냈는데, 부자도 마찬가지로 바쁜 생활 속에서 시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세 가지 테마를 선택하고 재활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바로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사람이 시험을 견디어 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받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잘못된 길로 인도될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26절과 27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2장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긴 섹션을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 훨씬 더 큰 섹션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주제를 살펴보고 저자가 이를 강조한 이유를 묻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층의 상황 때문입니까? 나는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지혜와 부, 또는 미안하지만 가난과 부와 관대함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제임스의 독자 중 적어도 일부가 빈곤한 상황에 있고 심지어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이미 제안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동정심을 나타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물을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도 반영하는지, 또는 이러한 다른 주제의 다른 가르침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교회 내의 특정 상황을 반영하는지, 그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제임스에 관해 다른 질문은 없나요?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야고보서가 잠언과 다른 유대 지혜 문학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유대 지혜 유형의 문학과 매우 유사하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곧 알게 되는 야고보의 또 다른 특징은 야고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예수의 형제로 식별하는 것이 옳다면 이것이 그가 그렇게 할 더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의 유사점은 야고보가 예수의 가르침에 어떤 종류의 의존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 자신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어느 복음서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아주 초기에 구두로 유포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기록된 형태로 전달되었을 것이며, 사람들은 기록된 복음서 밖에서도 예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사복음서 중 하나를 읽었거나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반드시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유사점은 야고보가 예수의 가르침을 알았고 의도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게 될 또 다른 사실은 좀 더 명확해 보이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당신이 주목하게 될 또 다른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산상수훈, 즉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대부분은 마태복음 5~7장에서 볼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와 예수가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카리즘 또는 축복의 말씀으로 알려진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런 종류의 진술을 자주 발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인내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팔복 중 하나인 마태복음 5-10장의 소위 팔복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을 약속하면서 박해를 견디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생각의 주제입니다. 제임스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천국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때? 2장에서 야고보는 가난과 부라는 주제의 순환 중 하나를 언급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세상이 보기에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또 마태복음 5-3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는 영이 없습니다. 누가는 단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태복음의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5장에서 부와 가난, 관대함이라는 주제는 5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제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부자, 아마도 부유한 지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이 먹었으며, 너희 금은이 부식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 두었음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롭게 할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물질적인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한 경고로 나중에서 이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여러분도 그 구절을 아시겠지만, 나방과 부식으로 인해 보물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물리적인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는 경고가 그 앞에 나옵니다. 제임스가 5장에서 경고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 더. 10장에서 야고보는 이제 인내와 인내라는 주제로 전환하고 다시 전환합니다.

형제들아 고난 중에서 오래 참음의 본으로 고난 중에서 선지자들을 택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설교, 특히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구약의 일부 선지자들을 다시 지적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큼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을 저희가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온갖 종류의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제가 준 마지막 것입니다.

이것은 곱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 중 하나만 있다면 야고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의존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산상 수훈에서 주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유사한 예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야고보가 지금 독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 자신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차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문학과 함께 유대인 지혜 문학은 야고보의 가르침의 대부분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며, 특히 산상 수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도 야고보의 가르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James가 Matthew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며 산상 수훈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제 고국에서 흠어지고 분리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신의 지시에 그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저는 단지 다음 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수요일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가 이것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James가 Paul과 똑같이 들리도록 강요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두 가지 가르침과 전통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과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전체 계시의 보완적인 측면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을 반복하자면,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2장과 같은 본문을 기억한다면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과 15장.

에베소서입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그거 들었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책들은 마르틴 루터가 손에 넣은 책들이며 우리가 바울을 자주 읽는 방식에 있어 오늘날까지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야고보의 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긴장감을, 말로는 긴장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야고보여,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서 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것이 주는가? 어느 쪽이 이기나요? 누가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읽어야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수요일에 저는 이 긴장감을 조금 더 탐구하고 아마도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왜 야고보와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책에서 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임스.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는 신약 역사와 문학, 히브리서와 야고보에 관한 강의 29번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